

I. 시작하는 말

죄의 본성은 공범을 만들려 하고, 죄를 남에게 돌리려 하며, 또한 합리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죄는 더욱 더 큰 죄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하나

뿐인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겨나 결국 살인이라는 중죄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구별이 되어 있는가?”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II. 중심 말씀

1.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이 있습니다.

죄의 색깔이 짙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여겼고 사람은 더욱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은 임합니다.

나눔 질문) _____

2.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항상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즉 지옥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덮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나눔 질문) _____

3.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주위의 시선과 소리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즉 인내하기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모두 다 준행하였습니다.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 방주는 노도 없고, 키도 없었으며 돛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렸다는 뜻입니다. 순종보다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세상의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서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길 결단해야 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찬314)

-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앞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2) 이전엔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